

아동의 공격성과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에 관한 고찰

하 진 의*

〈 목 차 〉

I. 서론	3. 대상 어머니와 환경 어머니
II. 공격성의 심리학적 제 이론	4. 어머니의 거울 역할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5. 대상 사용과 공격성의 뿌리
2. 공격성 이론	6. 반사회적 경향성
3.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특성	IV. 결론 및 제언
III.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	참고문헌
1. 자기(self)의 개념	ABSTRACT
2. 원시적 대상관계와 전능경험	

I. 서론

공격성은 생의 초기에 습득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사회적·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는 물론 범죄나 폭력 문제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반항적·공격적 행동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기에 쉽게 보이는 문제 행동인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에 비해, 성인기의 범죄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며 아동기의 공격성 유형으로 성인기의 공격성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Kagan & Moss, 1962). 공격성은 성장과 더불어 표현방식이 변한다 해도 공격적 특성상 상대적 위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하였다(Harup, 1984).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이렇듯 유아시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 적응, 학업 성취, 대인관계 등 발달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청소년기, 성인기의 공격적 행동의 학습은 매우 이른 생의 초기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가 되면 이미 공고해짐으로써 조기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되는 요인은 생물학적, 가정, 학교, 문화 등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특히 가정요인은 아동의 인지적 자극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한 잠재 원인인 동시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적 문제 발생의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바로 유, 유아기의 모든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으로 해석해도 타당한 얘기인 것이다. 최영희(1990)의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 연구에 따르면, 까다롭고 공격적인 가정분위기에 서 자란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부적응이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Bretherton(1991)는 개인의 양육행동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아 및 부모에 대한 내적 실험 모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동 초기의 대인관계가 이후의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주장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 행동의 핵심적 원리가 대략 3세 전후에 정해지고 그것이 주로 어머니로 대표되는 양육자와 아동의 최초 3년 간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에게 내면화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대상 표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동의한다(김병석, 1999).

개인의 대상관계란 자기와 대상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 내적 표상(intrapsychic representations)을 말하며, 이는 외적 대인관계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친밀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작용하게 된다(Horner, 1978; 김순진, 1998; 김윤화, 2002 재인용).

양육자와 유아간의 초기 대상관계를 통해 형성된 대상표상은 일생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보는 틀이 되며 이후 삶에서 맺는 대인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김사훈, 1998)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또는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대상관계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상관계이론가 중 가장 독창적인 이론과 실제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는 위니컷은 초기 유아의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와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이라는 함축적 용어를 만들어 유아의 대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내적 작용모델이나 애착유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가 양육자와 형성하는 초기 대상관계가 유아의 내적인 심리구조의 형성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장 초기에 양육자와 안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대한 제 이론과 아동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초기 환경, 특히 어머니와의 대상관계를 강조한 위니컷의 이론을 고찰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지도하고 상담할 때 생의 초기에 어머니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대상관계를 어머니와 경험하도록 하고, 또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적인 지침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공격성의 심리학적 제 이론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의 정의는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지,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여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행동의 결과적 영향을 강조한다(Eron, 1987).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측면을 가지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상황에서의 공격성은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다 널리 통용되는 것은 결과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의도를 강조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다(Berkowitz, 1993).

특히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를 주게 됨은 물론 공격자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Crick & Grotpeter, 1995).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성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지닌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고(김명숙, 1989; 윤완기, 1994),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 방어 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로 넓게 보기도 한다(곽금주, 1992).

더 나아가서 Bandura(1973)는 사회에서 공격적이라 칭하는 이유를 알 때 공격성의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적인 정의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즉 관찰 가능한 행동 뿐 만 아니라 지각된 의도, 행동의 결과, 행위자의 역할과 지위, 사회적인 가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 판단되는 상해적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였다.

한편 공격성은 연구자의 관심사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도발적 물리적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기도 하고, 적대적 공격과 도구적 공격, 합법적 공격과 비합법적 공격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박혜경, 2002, 재인용). 또한 공격성의 유형을 폭행, 간접적 공격, 흥분, 부정, 원한, 의심, 언어적 공격 등으로 구분하면서 폭행, 간접적 공격, 흥분, 부정, 언어적 공격을 합쳐 공격성이라 하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대감이라 칭하기도 하였다(Buss & Durkee, 1977). 적대감은 공격성과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언어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녀 일반적인 공격성과는 달리 내적인 공격성이라고 정의된다.

보다 체계적인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공격성은 도구적 공격성과 적대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었다(Hartup, 1974; Perry & Bussey, 1984). 도구적 공격성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성이며, 적대적 공격성은 공격 행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성이다.

또한 Frody, Macaulay와 Thome(1977)은 공격성을 공격 유형에 따라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려는 언어적 행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그들은 공격 대상에 따라 직접적 공격과 간접적 공격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직접적 공격은 좌절을 유발시킨 사람 또는 공격 대상에게 직접으로 행하는 공격성이며, 간접적 공격은 공격 유발자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치환된 공격 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공격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Kagan, Mussen과 Conger(1979)는 표현 방법에 따라 행동적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는데, 행동적 공격성은 신체 행동이나 언어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행하는 공격 행동이고 내재적 공격성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상과 같이 내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외에도 Dodge와 Coie(1987)는 타당화 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구성요소를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성이지만,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과 같은 공격성 원인을 제공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응적 공격성은 욕구-좌절 공격모델(Berkowitz, 1993)에 기초하며 좌절이나 지각된 위협에 대한 분노 및 자기 방어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성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외적 강화를 얻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행동이다.

과거에는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의 공격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Maccoby & Jacklin, 1980; Whiting & Edwards, 1973)에 의해 남아를 중심으로 공격성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이르러는 Crick과 Grotpeter(1995)가 중심이 되어 여아에게 좀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이란 개인이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인 공격과 언어적이 공격을 포함한 개념이며, 이는 Dodge 와 Coie(1987)가 주장한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 배제하려는 집단적인 공격의 형태이다. 이 두 가지 공격유형은 여러 문화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Hart, Nelson, Robinson, Olson & Mcneilly-Choque, 1998; Tomada & Schneider, 1997), 국내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김민정, 2000; 이경희, 1998; 김윤화, 2002).

이상의 정의로 볼 때, 공격성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의 형태로서 생물학적인 요인과 욕구좌절 요인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성격특성, 학습,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인지적 판단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격성 이론

1) 본능이론

공격성을 본능으로 보는 관점은 Freud와 Adler 등의 정신분석학적 입장과 Lorenz와 Ardrey 등의 생태학적 입장이 있다. Freud(1946)는 인간에게 본능이 있고 이것이 행동을 형성한다고 가정하였고, 인간의 본능은 생의 본능인 Eros와 융합하여 나타나는 본능적 욕구 또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격성이란 인간의 내부에 흐르는 죽음의 충동이 내부로 지향될 때, 자기를 확대하고, 자살을 기도하며, 우울증을 유발하고 외부로 표면화될 때 공격행동으로 발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격의 표현을 변형시키거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으나 공격 자체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격적인 본능이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파괴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해 적응적이고 촉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dler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우월감에 대한 욕구로서 공격성을 보았다.

생태학적 입장에서, Lorenz(1971)는 공격성을 동물과 인간에 내재하는 투쟁본능이라 정의하고 자신의 생계와 영토를 위한 싸움, 번식에서 최우수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공동체 내에서 질서를 위한 힘의 지배에 의해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공격적 에너지가 여러 가지 행동 형태들을 통해 규칙적으로 발산되지 않으면, 그것이 누적되어 적절한 환경 자극이 없을 때에도 나타난다고 믿었다.

공격성을 본능으로 설명하려는 점에서는 Freud가 공격성을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Lorenz는 종족의 적응과 생존을 위한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공격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공격성을 통제할 수 있는 훌륭한 기제인 언어를 발달시켜 왔으며, 3-5세의 어린 아동들도 갈등상황이 공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리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Sluckin & Smith, 1977).

2) 욕구좌절이론

Dollard와 Kauffman(1939) 등에 의해 제시된 욕구좌절이론에 의하면 공격성의 발생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가 환경의 방해로 받아 생겨난 좌절감의 결과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좌절-공격 가설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욕구좌절이 있을 때 모두가 공격반응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둘째, 같은 사람일지라도 욕구좌절에 대해 언제나 공격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셋째, 욕구좌절에 대하여 공격행동 뿐만 아니라 위축, 우울, 퇴행, 환상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후 Miller(1941)에 의해 변형된 욕구좌절-공격 가설이 제안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욕구좌절은 처음에는 공격이 아니라 분노를 유발한다. 그 상황에서 공격에 적절한 단서들이 있으면 공격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황의 성격에 따라 욕구좌절을 극복하려 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혹은 위축될 것이다(Seligman, 1975).

3) 사회학습이론

사회 학습 이론에서는 공격성을 본능과 충동의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습득한 행동으로 본다. 이 이론은 조건적 견해와 사회 학습적 견해로 분류된다. 조건적 견해는 외부의 정적 강화에 의해 공격적 반응과 그 이전의 자극이 강한 관계로 형성되고 다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불유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서 공격성을 보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함으로써 정적 강화를 받게 되면 이 공격성은 가속화되며, 문제 해결 방법으로 공격성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Patterson & Mischel, 1976). 이러한 공격성은 그 행동이 성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 자유롭게 나타나며 언어적 공격성이 보상을 받았을 때 신체적 공격성도 증가하는 공격성의 일반화를 보인다(Bandura, 1973).

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적 견해는 관찰과 강화를 통해 공격성이 학습된다는 Bandura(1973)의 설명으로 집약된다. 그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에서 관찰학습이 새로운 공격반응을 획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Hicks(1965)는 공격적이 모델에 10분간 노출된 아동들이 6개월 후 같은 사태에 놓였을 때 공격적인 모델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들보다 높은 공격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공격성의 정화 가설을 부정하며 인간의 내적 요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공격성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아동이 자기 규제와 같은

인지적 전략을 이용하는 상황이나 각 상황에 따른 효과 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4) 사회 인지 이론

사회 인지 이론은 인간이 특정한 행동을 취할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자유 의지에 위협이나 침해를 받게 되면 내적 과정을 거쳐 그에 대한 반작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Dodge(1980)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 정보 처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반응하기까지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정보 처리 과정은 부호화, 해석, 반응 탐색, 반응 결정, 반응 수행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부호화 과정은 단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며, 단서를 받아들이고 지각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 단계로 아동은 부호화된 단서를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에 통합하고 그 단서에 대한 의미있는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반응 탐색 단계로서, 앞으로 일어날 가능한 행동 반응을 탐색하고 예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행동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반응 결정 단계로 아동이 전 단계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반응을 생각해 낸 후에 최적의 반응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는 반응 수행 단계로서 앞의 단계에서 결정한 반응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격적 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처리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Dodge & Crick, 1990). 즉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정보를 해석할 때 적대적인 의도를 포함하여 해석하며, 상대방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Dodge, 1980).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은 아동이 왜 공격적이 되거나 비공격적이 되는가를 알 수 없으며,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사회적 단서를 처리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개인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Shaffer, 1988). Dodge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정보 처리 이론은 공격성 연구에 새로운 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발달의 과정에서 정보처리 기능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망된다.

공격성에 대한 이론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적절한 교육적이고 치료적인 노력이 공격적인 의도나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능이론은 공격적인 충동이 적절한 해소 자극에 의해 경감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욕구좌절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좌절이나 분노같은 부

정적 정서상태에서도 비공격적인 반응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인지 이론에서는 인지적 과정의 개선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3. 아동의 공격성 발달과 특성

아동의 발달과 함께 공격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문제는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공격적 행동과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고 교정하는데 중요하다.

아동 발달에 있어서 1세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는 도구적 공격행동을 통해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하며, 2-3세 아동은 때리고 밀치는 물리적 공격성을 보인다. 5-6세 경에 아동이 타인의 의도나 동기를 추론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우연한 공격적 행동의 원인을 고의로 해를 가하려 했다는 공격적 의도로 추론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Patterson과 Mischel(197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많은 아동이 공격성을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감소하는데 반하여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성이 증가하고 사회성 발달은 미약하다. 또한 Patterson(1982)에 따르면 초기 아동기와 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공격적 행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따르지 않는 아동들은 나중에까지 공격적인 사람으로 남게 된다.

도시에 사는 8세 아동을 대상으로 22세가 될 때까지 공격성의 특성을 추적 연구한 결과, 상당수 아동들이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Farrington, 1989; 고미영, 1998, 재인용). 공격성의 안정된 성향은 예후적 추적조사를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폭력이나 재산에 관한 범죄의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해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15세, 18세, 27세가 되었을 때 재조사를 실시한 연구(Sigvardsson, et al., 1987)에서 공격적 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 공격시 해를 피하는 정도, 공격으로 인한 보상에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 11세에 나타났던 지표들이 이후의 행동을 대체로 정확하게 예측하였다(고미영, 1998).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공격성의 양상이 달리 나타나며, 공격성에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체로 공격성의 상대적 정도는 청소년기 이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아동기부터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Ⅲ.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

1. 자기(self)의 개념

위니컷의 자기개념은 Freud의 정서발달체계 원본능에서 오는 성적 흥분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항상 원본능이 유아의 현실에 적응하는 어려운 관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근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험하는 사람(자아 혹은 자기)이 없으면 이러한 본능에 기초한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즉 건강한 개인은 고립되어있지 않으며, 개인과 환경은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

위니컷에 따르면, 생의 아주 초기에 “자기”라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는 인격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자아(ego)”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의식의 출현과 함께 즉 아기가 “다른 사람들 들어 보고, 느끼고,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의 접촉을 통한 인식을 위하여 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자기”라는 말이 적절한 것이 된다. “자기”는 약하고 파편적인 자아에서 자기-인식으로, 갓난아기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유아상태로 옮겨감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위니컷은 아기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관계의 한 부분이다. 유아의 실제적인 신체의 무능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의 필수요건이 “촉진적 환경” 또는 “유아와 함께 단일체를 이루는 모성적 돌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타고난 잠재력이 유아의 성장으로 실현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위니컷은 모성 기능을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을 “충분히 좋은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모성 기능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위니컷의 연구와 분리될 수 없다.

위니컷(1981)은 유아 정서발달의 기본 가정을 인간이 의존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데에 두고, 의존 단계를 절대적 의존기와 상대적 의존기 및 독립의 단계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아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모성적 돌봄이 없는 곳에는 유아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즉 유아가 본질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유아의 실제적인 무능이 유아로 하여금 촉진적 환경 또는 모성적 돌봄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대 의존기를 안아주는 시기(holding phase)라고 표현했다. 안아주기란 유아를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개념의 환경적 제공 전부를 뜻하는데 위니컷(1987)은 이를 “점차 자기(self)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말한다. 생의 아주 초기에 유아의 인격상태를 자아(ego)라고 보며, 촉진하는 환경은 유아의 타고난 잠재력을 도와 유아를 자아상태에서 자기(self)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옮겨간다고 본다.

2. 원시적 대상관계와 전능경험

대상관계이론에서 보는 대상은 유아가 관계를 맺는 타인을 의미하며 대상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개인은 대상(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과 자기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그와 관련된 감정들과 상황맥락에 대한 표상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및 이들간의 관계가 곧 대상관계이며 이 대상관계에 의해서 실제적인 대인간의 상호작용 행동의 많은 부분들이 좌우된다는 것이다(김창대, 1996).

위니컷은 대상관계가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넘어갈 때 유아의 “나”는 “나 아닌 것”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원시적 대상관계에 있어서의 대상은 유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니컷은 이 대상을 “주관적 대상”으로 간주하며, 그것은 객관적으로 지각된 대상과 대조를 이룬다.

위니컷은 본능적 충족, 만족, 좌절 등을 기반으로 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대상관계로 보면서 자아가 대상관계를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초기에 충분히 좋은 엄마”의 돌봄이 있을 때 아기는 자아 참여가 제외된 본능적 만족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엄마의 돌봄은 유아에게 만족을 주는 문제라기 보다는 유아로 하여금 대상을 발견하고 대상과 친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니컷의 연구에서는 특정 유아의 엄마에 의해 제공된 환경적 구조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의해 주도된 행동이 아니라 그 유아에 의해 주도된 행동을 항상 강조한다.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지원해 주는 행동에 의해서 유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는 경험으로 변한다. 여기에 환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며 유아는 세계의 창조자가 된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는 주관적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아에게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유아가 “전능을 경험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을 허용한다. 유아가 욕구로부터 만족의 근원을 찾고 있을 때 어머니의 젓가슴은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와 탐욕 그리고 원초적 사랑의 첫 충동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유아의 만족은 어머니가 제공한 젓가슴과 같은 것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타고난 근원적 창조성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는 살아있는 질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상이 되어 주는 것은 첫 대상관계를 촉진시켜주는 어머니의 지혜로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 대상 어머니와 환경 어머니

유아를 돌보는 것의 두 가지 측면, 즉 유아의 긴급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분대상의 소유자, 혹은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피하게 하고 아이를 어루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머니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묘사하기 위해 “대상 어머니”와 “환경 어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람과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을 수용해 주는 사람은 환경 어머니이며 원초적인 본능 긴장에 의해 지원받는 흥분된 경험의 표적이 되는 것은 대상 어머니이다. 대상 어머니와 환경 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속에 함께 생길 때 아이의 삶에서 나타나는 아주 정교화된 경험이 있다. 혈기 왕성한 원본능-욕동을 동반하는 환상은 공격과 파괴를 담고 있다. 대상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아기가 대상을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상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다른 한쪽 면은 아이와 환경 어머니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각도에서 어머니의 보호가 지나칠 경우에 아이도 억압되거나 대상에 대한 공격성으로부터 도피한다. 유아의 젖떼는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어떤 유아들의 경우 스스로 젖을 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의적인 상황에서 이런 복잡한 양가 감정의 해결을 위한 기술이 확립된다. 유아가 엄마를 소비하면 그녀를 잃게 될 것이므로 유아는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불안은 아이가 환경 어머니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수정된다. 환경 어머니에게 공헌하고 베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점점 확신하게 될 때, 그 확신은 유아로 하여금 불안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감당되는 불안은 그 성질이 바뀌어 죄책감이 된다. 그 죄책감은 환경 어머니에 대한 공헌에 의해 감당되고 달래진다.

4. 어머니의 거울 역할(Winnicott, 1971)

인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거울의 초기 형태는 어머니의 얼굴이다. 유아 정서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이 담당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때 환경은 아직 유아에 의해서 나아진 것으로 분리되지 않는 환경. 점진적으로 나로부터 나아진 것의 분리가 발생하는데 그 속도는 개별적인 유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 변화들은 어머니가 객관적으로 인지된 환경적 특성으로 분리되는 데서 발생한다. 거기에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유아의 발달과제는 난관에 봉착한다. 이 환경의 기능을 단순화시켜 간단히 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안아주기, 아기 다루기, 대상 제공

유아는 이 환경적 제공에 반응할 것이며 그 결과로 아기는 최대한의 개인적 성숙을 이룬다. 이 단계에서 성숙이라는 말은 정신, 신체적인 상호연결과 대상관계를 포함하여 통합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다양한 의미가 담긴 말로써 사용되고 있다. 아기를 잘 안아주고, 만족스럽게 다루어 주며, 이것과 함께 아기의 적당한 전능경험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상이 제공될 때 통합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은 처음 시작에 해당하며 여기에서부터 유아의 정서적, 정신적 발달에 관련된 무한한 복잡성 등이 생겨난다. 어떤 시점에 이르러 아기는 주변을 살핀다. 아기는 어머니 젖가슴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더 특징적인 모습일 것이다(Gough, 1962).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는 무엇을 보는가? 일반적으로 아기가 자신을 본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녀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자신의 기분을 반영하거나 더 나쁘게는 자신의 방어체제들의 경직성을 반영하는 경우 아기는 어머니의 기분을 예언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머니의 얼굴 모습을 연구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아기는 거울에 대해 그리고 거울이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혼동스러운 느낌을 지닌 채 자라게 될 것이다.

1) 안아주기(Winnicott, 1971)

안아주는 “점차 자기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기초”이다. 삶의 흐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흐름을 깨지 않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안아주기가 환경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안아주는 “태아기 상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제공”에서부터 출발하며 심리적 의미에서 안아주기의 기능은 자아-지원을 제공하는 것, 자아의 통합이 성립되기 전인 절대적 의존기에, 유아에게 자아-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합의 성립과 자아-관계성 발달은 둘 다 충분히 좋은 안아주기에 달려 있다.

안아주는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아직 구별되지 않거나 혹은 구별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초기에 특히, 사랑의 한 형태로서 육체적으로 유아를 안아주는 것을 포함한다. 안아주는 또한 함께 산다는 개념에 앞서는 즉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독립된 사람이 되기 이전의 전체적인 환경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안아주기에는 3차원적인 시공관계가 점차로 덧붙여진다. 이것은 대상관계를 결정하게 될 본능 경험과 중복되지만 그것보다 앞서 시작된다. 이 과정은 어머니의 자각과 공감에 의해 결정된다.

2) 아기 다루기(Winnicott, 1971)

유아 다루기는 생의 초기에 안아주는 환경이 중요하다. 유아는 적절한 다루기를 통해 몸을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일게 되고, 자기가 몸 안에, 몸 전체에 거주한다고 느끼게 된다. 몸의 경계는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제한막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아이들은 출생 직전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람은 그 아이가 아직 자궁 속의 태아일 때에도 대체로 적절한 신체적인 돌봄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몸과 정신의 통합, 또는 몸과 정신의 해체감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의 기초는 출생 이전에 시작된다.

누군가가 아이를 안기 시작할 때, 그들의 생리적 반응 뿐 아니라, 정서적 참여가 아이의 몸과 정신

통합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어머니의 능력에서 발견된다. 아기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아기를 안아주는 어머니에 의해 함께 모아진다. 그리고 그녀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러한 하나됨은 자아통합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데 몸의 조화와 세련의 기초가 되며 신체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신체활동 안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한다.

3) 대상 제공(Winnicott, 1971)

대상 제공은 아기와 자라나는 아이에게 인간 관계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전체 현실 세계를 소개해 주는 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후 몇 주 동안에 일어난다. 위니컷은 이것을 순수 여성적 요소, 즉 안아주기의 측면과 관련된 관계 맺기라고 말한다. 이 관계는 융합상태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상태에서 아기의 미발달한 정신은 아기와 어머니가 아직 분리되어있지 않다”고 여긴다. 유아는 이런 관계를 통해 존재의 느낌 혹은 정체성의 느낌을 경험한다.

정체성의 느낌은 유아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 원초적 시작에서 어머니의 돌봄과 어머니의 유아 창조와 관련하여 대상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적절한 시간에 즉 유아가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일을 행하는 어머니에 의해 가능해진다.

위니컷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안아주는 환경이 있어야하는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인간관계와 같은 것은 없다. 어머니는 대상제공을 통해 아이에게 세계를 삶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 준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곧 세계인 것이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유아가 평소에 얻는 것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돌봄과 관심이다.

5. 대상 사용과 공격성의 뿌리

위니컷은 공격성과 파괴성의 뿌리를 관찰할 필요를 느끼고 공격성과 현실 원리를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정신분석이론을 사용했다. 그는 프로이드처럼 파괴성을 죽음 본능과 관련해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좋은 대상에 대한 질서가 존재하며 이는 생의 초기부터 파괴를 일으킨다는 클라인 학파의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격성은 유아의 태아기의 운동성에서, 태아의 총동에서 정지보다는 움직이게 하는 것에서 조직의 살아있음에서 근육 움직임의 첫 증거에서 밝혀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초기 공격성을 활동성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그것을 부분적 기능의 문제로, 공격성은 생명력 그 자체로 보았다.

절대적 의존기 동안에 엄마의 자아-지원으로 본능 경험이 유아에게 자신의 부분으로 느껴진다면 공격적 요소는 이런 경험들과 융합되며, 경험들이 더욱 강렬해진다. 이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에 대한 폭 넓은 이해는 아래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본능적 공격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증오에서 유발되는 무엇이 되지만 본래 일종의 식욕이거나, 본능적 사랑의 형태라는 것이다. 흥분하는 동안에 공격성은 증가하고 그 공격성의 실행은 매우 유쾌한 것으로 경험된다. 탐욕이란 용어는 사랑(여기서는 구강기적 사랑에 한정되지만)과 공격성의 본래적 융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6. 반사회적 경향성(Davis & Wallbridge, 1981)

상대적 의존기에서 환경이 실패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박탈의 개념을 만나게 된다. 위니컷은 유아가 “모성적 돌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가장 초기 단계의 실패를 “절대박탈”이라고 하였다. 박탈은 충분히 좋은 환경을 경험한 후의 상실로 “일이 상당히 잘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실은 유아나 아이가 의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단계, 즉 “유아가 환경이 지닌 부적응의 성질을 막 인식하는” 발달 단계에서 일어난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본래 박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위니컷의 논지이다. 그는 반사회적 경향성이 “침대에 오줌싸기, 흠치기, 거짓말하기, 공격적 행위, 파괴적 행동과 충동적 잔인성 그리고 성도착 등”의 행동에서 임상적 징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반사회적 행동 속에 내재된 희망은 아이가 “박탈의 순간 이전으로 되돌아 갈 수 있고 따라서 중립적 상태가 조직되기 전에 생겨난 극도의 불안이나 혼란에 대한 공포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데 있다.” 아이는 이 시점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고 따라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 자발성은 회복되고 죄책감이 재발견되지만 이런 성질의 반사회적 행동은 강박적이며, 그 밑에 깔린 죄책감을 아이가 자각하고 있는 죄책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점에서 피상적인 관찰자들은 “이런 소년이나 소녀는 도덕관념-임상적으로 죄책감이 없다”고 말한다.

위니컷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을 생생한 느낌을 가지려는 시도로 보았다. 공격성은 “나는 이다”라는 말과 성장의 행동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공격성 행동은 정신과 신체를 청소년 자신과 함께 묶어 내는데 있어서 그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공격성은 이런 식으로 역시 미성숙 안에 있는 “나는 이다”의 선언은 환상이나 내적 실재 안에 박해 기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생한 감정은 특히 그 기대가 충족되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고 따라서 공격성은 박해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이 동일시하기 위해 찾는 그룹에서 혹은 박해와 관련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고립된 이들의

집합체에서 그 그룹의 극단적인 구성원들은 전체 그룹을 위해 행동한다. 청소년들이 투쟁에 속한 모든 종류의 일들—훔치는 것, 칼질, 파괴, 침입 등—이 그룹의 역동성 안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반항의 실체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비록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극단적인 반사회적 특성을 지닌 일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각 개인 구성원들은 충성스러워질 것이며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킬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가속화되어 가는 폭력문제나 극악한 범죄 현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그러므로 생의 초기에 그 치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볼 때 아동의 공격성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많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공격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언어적 상처를 주거나 재물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닌 공격성은 파괴나 폭력 등 부정적인 면을 내포한다.

그러나 아동의 공격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동의 공격성은 자기실현의 원동력으로 자기발전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이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 어머니의 역할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위니컷의 대상관계 이론을 고찰해 볼 때, 유아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곧 우주”라고 정의하면서 공격성을 생명력 그 자체로 보았다. 그러나 환경의 실패로 유아가 박탈감 개념과 만나게 되면 창조적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해체나 부모와 관련된 박탈이 일어날 때 아이의 정신구조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즉 충동성과 자발성을 잃게 되어 내성적인 성격이 된다면, 반대로 죄책감을 상실한 폭력적인 거친 성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이해하고 지도할 때 위니컷이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역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에게 어머니는 정서적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세상을 탐험하다가 지치거나 힘들면 어머니라는 기지에 돌아가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탐험하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아동에게 충분한 지지와 공감을 보여 줌으로써 불안과 두려움을 낮춰주고 아동의 공격성을 생산적으로 발달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이 낮아지면 아동은 다시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더 발달하게 되면 아동에게 어머니

는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은 자신이 발견하고 본 것들을 어머니라는 대상과 나누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나눔의 역할 속에서 아동은 조금씩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역할을 내면화하는 아동은 자신이 독립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어머니와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대상 관계를 아동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교사가 따뜻하게 수용해주고 배려해주어 그 아동이 교사로 인해 새롭게 주요 타자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미영(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1.
- 곽금주(1992), 공격 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김명숙(1989),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민정(2000),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 자매 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병석(1999), 관계문제로서의 정서행동장애: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34(2), 257-275.
- 김사훈(1998), 대학생의 초기 대상관계와 공감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 김순진(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 동맹 및 상담 중 의사소통 방식의 관계.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운화(2002), 유아의 공격성과 어머니의 대상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 김창대(1996), 관계유형 개념화를 활용한 상담. 생활지도. 계명대학교, 21, 63-88.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희(1998), 관계지향 공격성 및 외현화 공격성과 심리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이윤경(200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윤완기(1994), 부모의 체벌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광대학교.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Holt.
- Berk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Academic Press.
- Bretherton, I.(1991), The root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p. Marris, J. Stevenson-Hinde & C. Parke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9-32), New York: Routledge.
- Buss, A. H., & Durkee, A.(1977),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Coie, J. D., & Dodge, K. A.(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Coie, J. D., & Dodge, K. A.(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W. Damon(1998),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3-2). New York: John Wiley & Sons.
- Crick, N. R., & Grotpeter, J. K.(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y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vid, M. & David, W.(1981), *Baoundary and Space*. 이재훈 역.(1997). 「올타리와 공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Dodge, R. A.(1980), "Social Con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 Eron, L. D.(1987),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 Freud, S.(1946), *The Ego and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76-77
- Frody, A., Macaulay, J., & Thome, P. R.(1977), Are woma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a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3, 95-98.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o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ist*, 29, 336-341
- Hartup, W. W.(1984), Peer Relations,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03-136, New York: Wiley.
- Hartup, W. W.(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 336-341.
- Hicks, J. A.(1965), Study of characteristics of 250 junior high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9, 219.
- Horner, A. J.(1978), *Object relations and developmental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Kagan, J., & Moss, H. A.(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Kagan, J., Mussen, D., & Conger, J.(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ew York:

Harper Row.

- Lorenz, K.(1971). *On Aggression*. 송준만 역.(1986), 「공격성에 관하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ccoby, E. E., & Jacklin, C. N.(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Patterson & Mischel, W.(1976), Effects of temptation inhibiting and task-facilitating plans on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209-217.
- Perry, D. G., & Busse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Tomada, G., & Schneider, B. H.(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over time,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1, 943-963.
- Winnicott, D. W.(1971), *Therapeutic Consultations in Child Psychiatry*. 이재훈 역.(1998). 「그림놀이를 위한 어린이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Winnicott, D. W.(1981),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 역.(1997). 「놀이와 현실」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Aggression of Children
and Object Relations Theories of Winnicott**

Ha Jin-eu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teachers and parents for the time when they consult with aggressive children. To do so, I consider the theories, which is about the aggressive development of children, of mine and the primitive environment from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the theory of Winnicott who emphasizes object relations with mothers.

We should play a necessary role, as Winnicott mentioned, of "good enough mother" so that we can understand and guide children with aggression. Mothers show those children support and sympathy enough to diminish discomfort and fear, and make those aggressive children help transcend aggression into normally developmental stages. Furthermore, mothers as objects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ring one another's experiences in a concrete manner. Children who also can internalize such shares can grow independently. Such good roles of mothers would be able to have their children accomplish their integrity.

When aggressive children are consulted and guided as well, it is so important for those children to form good object relations, which they could not afford to experience before, under the consulting teachers' custody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When infants can form images of important objects through the help of teachers, they would be able to help themselves and others form positive images.